

公開セミナー資料

2015.7.25.土

Part2 子どもの貧困への多彩なアプローチ

民からスタートした 韓国スタイルの貧困児童プログラム

プール学院大学

教学部・教育学科

劉 眞福(ユウジンボク)



韓国スタイル？

韓国の貧困児童プログラムは

- ・「米国のヘッドスタート事業と英国のシュアスタート事業とルーツを同じにする」
- ・「韓国型」＝「韓国の地域における事業モデル」＝「韓国の～」？
- ・「海外に発信できる韓国スタイル」

WeスタートからDreamスタートへ

Weスタート:

福祉(**W**elfare)＋教育(**E**ducation)

意味:

私たち(We)みんなが一緒に、貧困児童に福祉(Welfare)と教育(Education)及び健康Healthサービスを提供し、平等な暮らしの出発(Start)を手助けする

Dreamスタート:

初めの名称「希望スター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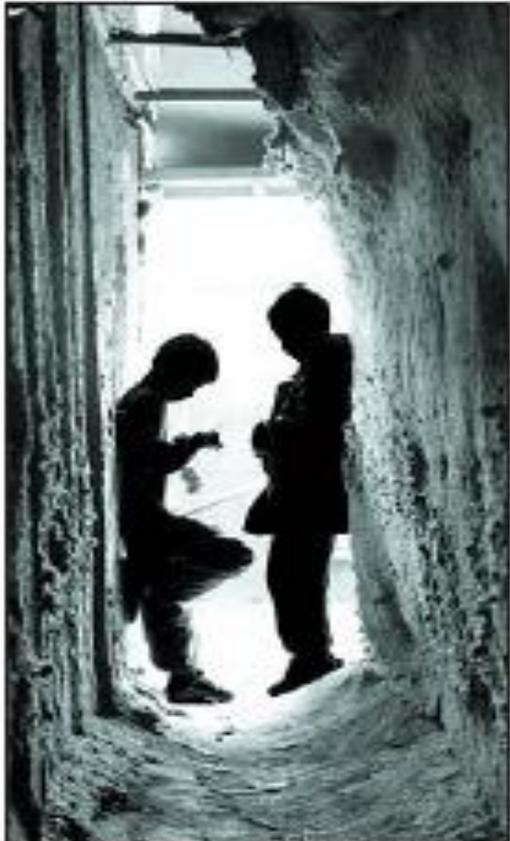
「ヒマン(希望)」を**英語**に

100만명이 울고 있습니다

新빈곤층 늘어 외환위기 전의 2배로
이혼, 카드 및 다른 가정 해체가 원인

한소연이 울었다. 차가운 도시의 카페에서 걸출보그시에는 더 춥게 느껴졌다. '16세 초 000은 15일경남 대상시상사당 계층에 속하게 되었음. 어머니 가난. 어머니는 대일일일기. 중학교 성적 우수. 생활고에 국극을 겪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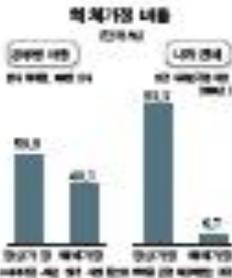
소연의 어머니는 1990년대 말엔 고 시에서 물레니 사업을 시작했다가 외환위기와 소연 출생에 위기에 국난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가족으로 책임을 이어받은 소연은 최근 "어 내자가 논계를 시 한부 안공"이란 소식을 듣고 살의 끈을 스스로 놓아준 것이다. 국기도, 사해도 이 소연과 분노와 자살을 하지 못했다. 살업난이 길 계속 물레헨과 가 물레 차면서 많은 소연-소연이 가난에 갇히고 있었다. 출산물에 공격해 넘어 치는 내는 연은 어머니 계속 물레니던 언저지 일 연에서 무에의 살장 문에 큰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분노 위생일 연은 어머니 살해와 내자 발을 문에 귀곤 단해와 공문으로 걸을 수 없었다.



어둠과 냉이 환경에 서 있는 두 소년. 한것일 백에 단 열재기 물레헨물 물레 연 어머니를 큰 공문어 어두운 공문지럼 느껴진다. 서울 김남 구의 날물레연 '구물 대물' 소년들이 물레니던 곳의 전경에 2000년 하는 물레니던 위치.

이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지난 해 까지 모두 10만 7000여명 이대 일레어 크로소 사할 등 에 들어 온 것으로 집계 됐다. 서울과 시흥지하와 구인 하(혹 스텝)에서는 "연 연은 어머니에게 건 강 고 공 상의 날날 들어 리 방편 에 서 나 온 영영을 건다면서 "자갈 연 은 어머니에 하할한 사희적 크로소 지를 취하지 않는다 연 우리 사할가 나일에 차아 할 비물은 그 물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혹 날어 서할-어구연-갈기 한 길 경차 크로소 하할한 어머니를 기차 시간-연 상하 하할근 기차 letter@copans.co.kr



서울 사대문구의 한 양육시설에 있던 어린이들. 자라고 있는 계수(가)와 (나). 지난 10년간 이 아이의 남부 현상은 대항 할 에 서 있었다. 계수 의 어머니는 종종 사희 세 하업을 하던 어머니와 성격 차이는 다투기 를 거듭 하다 199년 이혼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이후의 총적으로 하업 일을 그만둔 어머니는 계수를 데리고 여흥 크로소을 연 연해다 물레자 신의 누나 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적에 버렸다. 계수의 크로소 는 우리 국정을 위 크로소는 아이를 키우어 했지만 이 또한 남편의 생애를 이 계속지 못하크. 자갈에 이곳에 아이를 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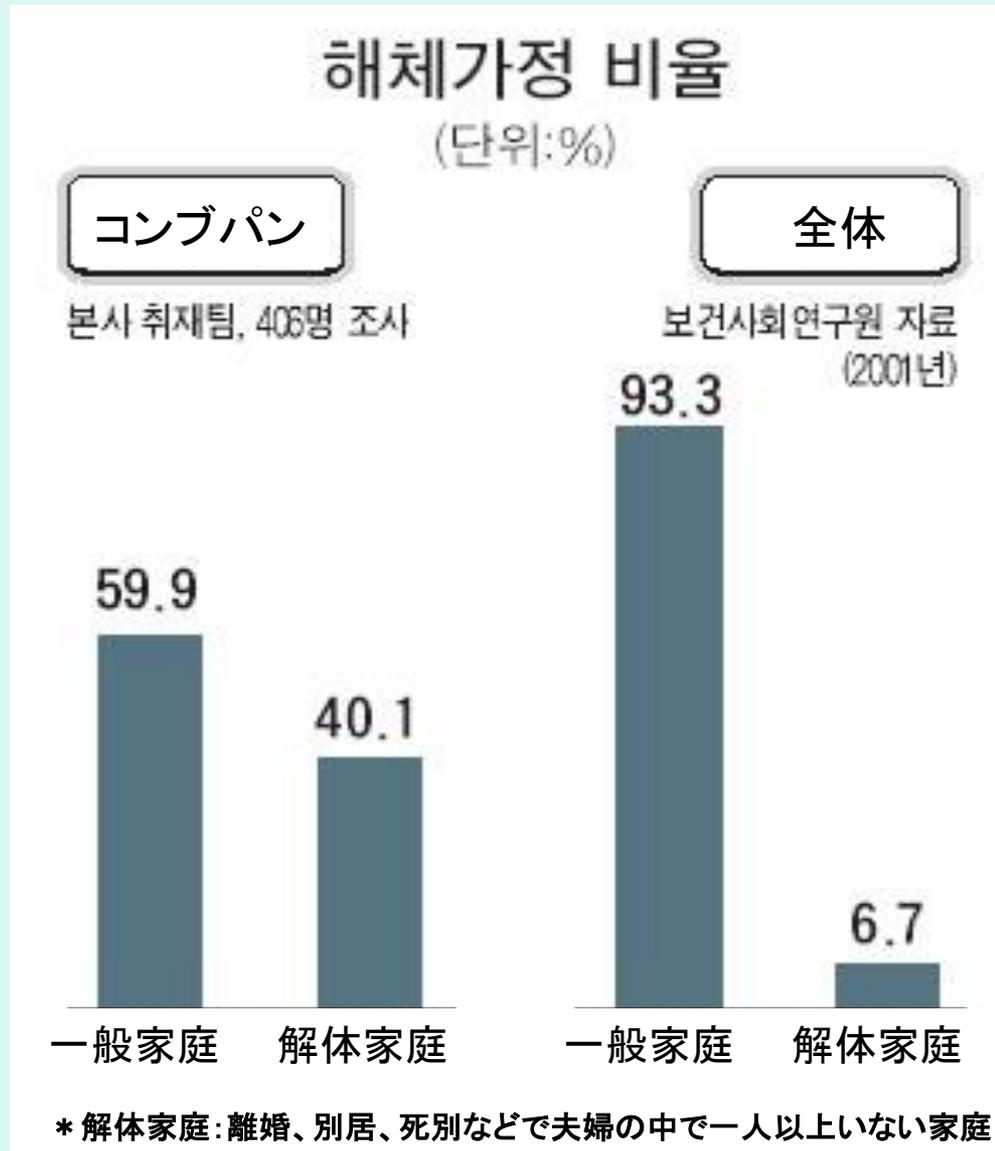
이후 사할해자 사 물레는 "자갈 해 크로소에 물레연에 두명을 죽은 계수처럼 부모가 하는 것보다 사할 부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가업 이 계신 아이들" 이라고 말했다.

본사 취재팀의 리버의 할 여연과 사할해 자할연이 가 물레한 일과 크로소 날 할 에 무에의 연은 어머니 의 크로소로 크로소했다. 이는 리 할 연이 이환위기 연 연연 물레니던 무에 크로소다. 가난의 연은 어머니 가난에서 영어 나지 못하크고 있는 한 연 새 연은 연으로 물레지는 물레연이 갈 수 무를

Weスタート運動の背景

- 中央日報2004年3月22日 『探查企画：貧困に閉じこまれた子ども』のテーマで、出だしが大きい文字で『100万人が泣いています。新貧困層増え、通貨危機前の2倍に。離婚、カードの負債による家庭の解体が原因』

解体家庭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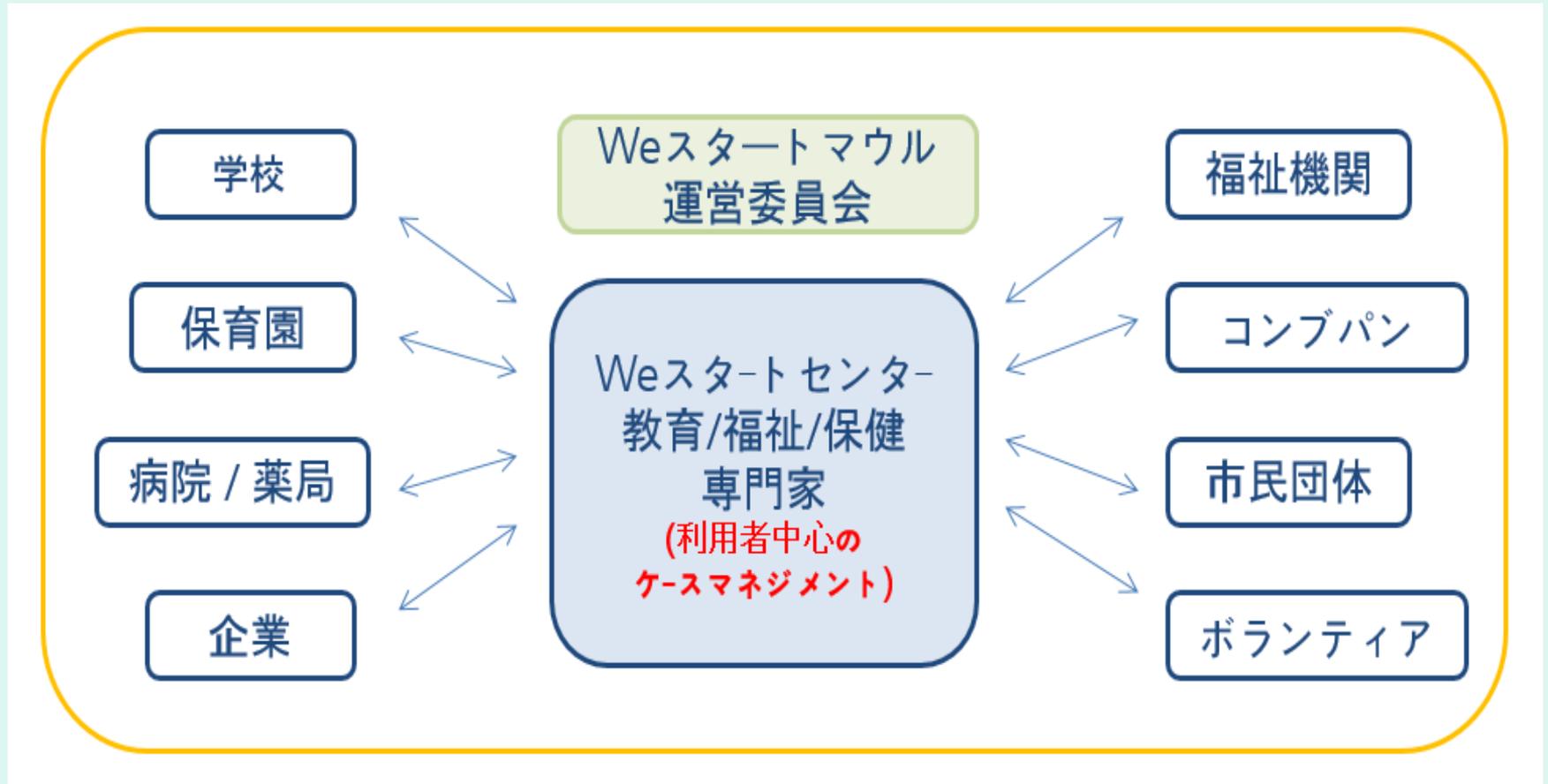
Weスタート3領域のサービス

福祉	教育・保育	健康・保健
<ul style="list-style-type: none">・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ク・放課後プログラム(コンブパン)・家族機能の強化プログラム・住環境の改善・経済的自立のための教育/活動の連携・文化活動の体験・スポンサーの紹介・住民参加プログラム	<ul style="list-style-type: none">・乳幼児の家庭・機関訪問、早期教育的介入プログラム・基礎学力の増進(メンタリング・プロジェクト)・就学前プログラム・父母教育及び養育支援・特技・適性教育の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家庭訪問の保健事業(発達スクリーニング検査、健康管理)・妊娠、出産及び子育て支援・精神健康の増進事業・健康診断管理・口腔検診管理・栄養・衛生指導・医療費の支援・情緒及び社会性プログラ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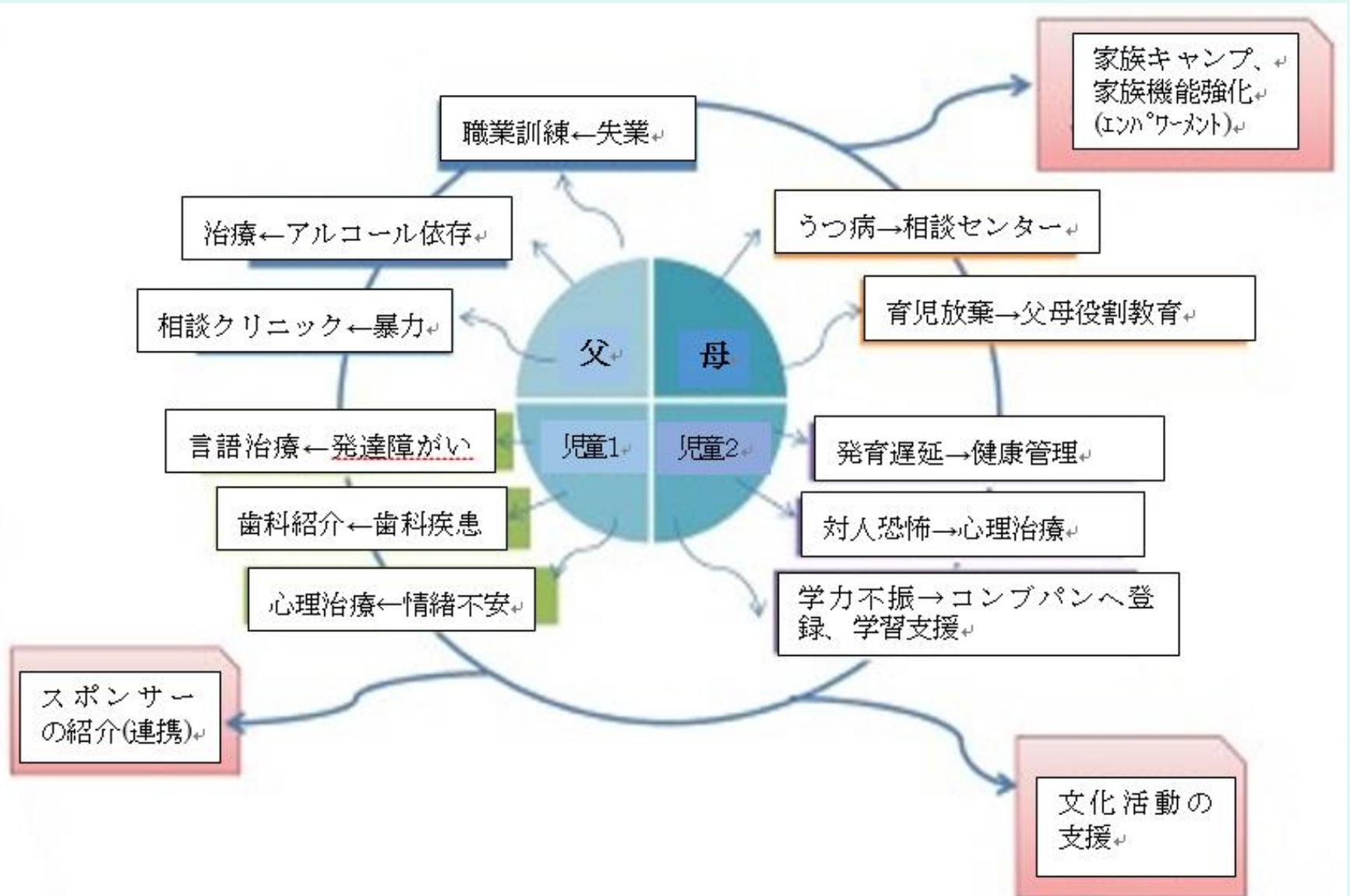
Weスタート5大事業

- ① 「Weスタートマウルづくり」
- ② 「教育出発ライン作り」
- ③ 「健康守りくん(チキミ)」
- ④ 「後見人の紹介」
- ⑤ 「希望の家(部屋)づくり」

Weスタートマウル



利用者中心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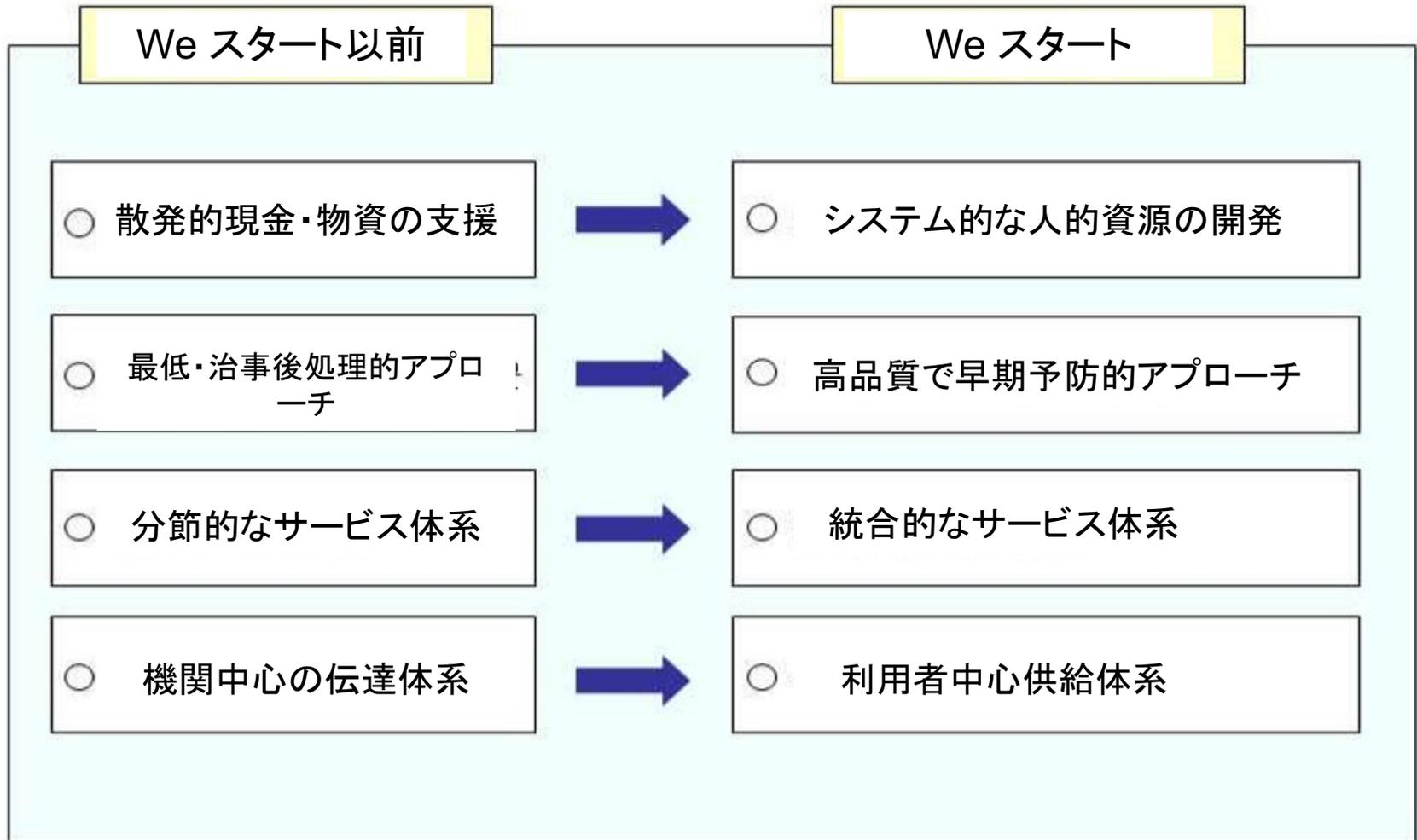


Weスタートマウルと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ク

- 指定された地域の小学校に、学校社会福祉士(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SSW)常勤
- 対象
 - 1次: 貧困家庭及び児童
 - 2次: 危機介入が必要な児童(依頼や申出、SSWの発見)
 - 3次: 全校生及び保護者と教師

「マウル」のコンセプトの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クであれば、これまでの課題を持つ児童を教師が選んで、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による介入が始まるような事後処理的な相談業務を超えて、地域と家庭での児童の様子が把握できる体制により、危機児童を立体的に支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Weスタートの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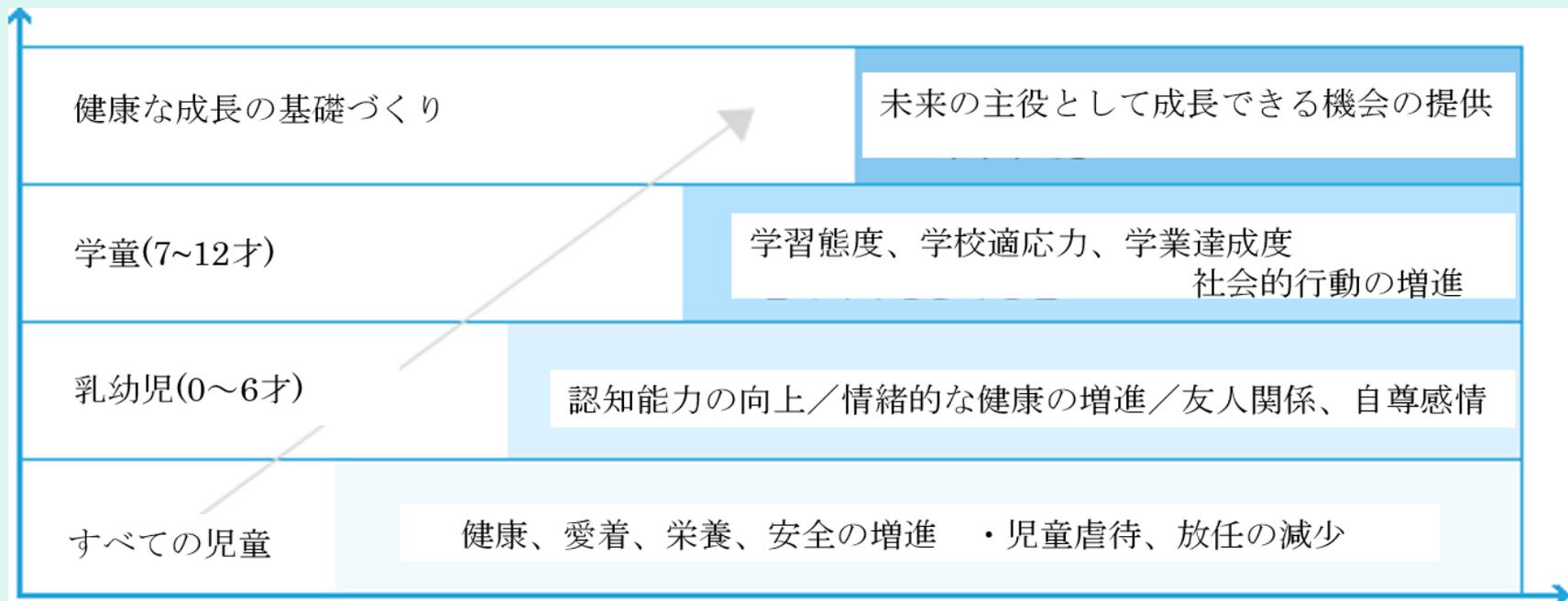


Weスタートを基盤とするDreamスタート

- 貧困児童のための社会投資価値の重要性など、国策事業に採択
- 2007年16か所スタート！
- 2014年220か所開所（設置対象地域230の内）
- 2012年児童福祉法の改正
- 「マウル」のコンセプトの不在

Weスタートの新しい動き

- 30か所(2012年)→15か所(2014年)
- Weスタート運動が海外に進出:2008年にカンボジアに「Weスタートマウル」、「青い鳥奉仕団」、「青少年学ぶ世界」、「グローバル児童センター」、「農村地域に拡大」
- 児童の具体的変化を促す目標



児童福祉法の改正 貧困児童に対する法的根拠

児童福祉施行令[施行 2012.8.5] [法律第24018号, 2012.8.3, 全部改正]

第37条(脆弱階層児童に対する統合サービス支援)

1.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および市長・郡守・区庁長は、法第37条第1項により次の各号に該当する家庭のうち、保健福祉部長官が児童の発達水準および養育環境などを考慮して決める基準に基づき、統合サービス支援対象を選定する。

- 「国民基礎生活保障法」にともなう受給者または、次上位階層家庭
 - ② その他に保健福祉部長官が決める児童の成長および福祉条件が脆弱な家庭
2. 法第37条第1項にともなう統合サービスの内容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 健康診断および病気予防教育など健康増進のためのサービス
 - 児童の基礎学習および社会性・情緒発達教育支援
 - 両親の養育指導
 - その他に児童の成長と発達を企てるために必要なサービス

3.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および市長・郡守・区庁長は法第37条第2項により、統合サービス支援業務を遂行するための統合サービス支援機関を設置・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統合サービス支援機関には保健福祉部長官が決めるところにより公務員と民間専門担当者を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Nowスタート(社会的養護の視点)

- **N**ew **O**pportunity for education **W**elfare

「ソウル市が保護を必要とする児童にたいして新しい教育福祉の機会を今、提供しよう」

- 児童養護施設で生活する児童の将来への不安と、現場の学習塾や特技・適性を伸ばす教育へのニーズに当時(2009年)のソウル市長の提案

⇒現在は消極的ではあるが、韓国における社会的養護の質を高めることの一助

韓国内貧困児童に関するプログラム

プログラム名	Weスタート運動	Dreamスタート	シーソーとクネ	Nowスタート
運営主体(総轄)	Weスタート運動本部(言論機関・民間団体)	保健福祉部	共同募金会	ソウル市
運営機関	Weスタートセンター	児童の統合サービス支援機関 (Dreamスタート)	シーソーとクネ乳幼児統合支援センター	地域児童福祉センター
発足時期	2004年5月	2007年	2008年	2009年
目的	貧困児童に対して公平な出発ラインの提供			
対象	選定された地域の低所得層の12才未満の児童と家族	全国の市郡区の低所得層の12才未満の児童(妊婦含む)と家族	低所得層家庭の乳幼児(0-6歳)と家族	要保護児童
支援内容	利用者中心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を福祉、教育(保育)、保健の3分野で統合サービス提供			利用者中心の学習支援サービス
人材構成	社会福祉士、保育士、看護師	専担公務員、専門要員(社会福祉士、保育士、看護師)	社会福祉士、保育士、看護師	地域児童福祉センターの職員
財源	自治体	国家(保健福祉部)	共同募金会、自治体	ソウル市
今後の展望	対象の拡大(青少年、海外、多文化児童)	全国に拡大	既存の育児政策に統合される傾向	—

《結ぶ》

「マウル」コンセプト

: 家庭的養護の推進(社会的養護の将来像)の下で、日本の地域は、今まで以上に貧困や課題を抱えた児童へのアプローチが必要

韓国スタイルなのか？

「共に喜び、共に泣く」という聖書の教えがあるように、一つの貧困児童に関する新聞記事によって、市民のみんなが泣き、その感想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つづられた。一緒に力を合わせてスタートして、マウル(地域)づくりをし、国家の貧困児童政策に響かせて、法律を変えたこととなった。それが韓国内外の多くのさまざまな貧困児童のための試みに繋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韓国スタイルの貧困児童プロジェクトであり、諸外国に発信できる貧困児童プロジェクトプロセスであろう。